

언어 구조 차이에 입각한 효과적인 기초 쓰기 지도법

잉글리쉬 무무 김성수

top@moumou.co.kr

02-431-9905

I. 서론

쓰기 활동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쓰기 학습은 목표 언어의 정확도(accuracy)와 능숙도(proficiency)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영어 쓰기 학습 지도는 제2언어(L2)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분야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영어로 쓰게 하는 방법의 부재, 글을 썼을 때 곧바로 이어지는 평가, 그리고 적절한 교정까지를 포함하는 일관된 학습 프로그램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SAT 평가의 변화에 이은 TOEFL과 TOEIC에 쓰기 평가가 필수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쓰기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한국적 상황에 맞춘 효과적인 영어 쓰기 지도 방법론 및 교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쓰기를 단순히 문자 기호의 조합 즉 메시지의 기호화(encoding)의 범주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두 단어나 문장 등 아무리 짧은 길이의 문자 기호 조합의 배열이라도 일관성(coherence)이 있는 하나의 글(text)로 형성될 때 이를 쓰기라고 한다(Byrne, 1988). 따라서 쓰기란 필자가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Lynch, 1996). 이에 따라 영어 쓰기 지도는 학습 내용은 물론, 학습 지도 방법과 평가 영역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모국어와 외국어 쓰기는 언어만 다를 뿐 동일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모국어 쓰기 능력이 우수하면 외국어 쓰기 능력도 우수할 것이라고 가정한다(Cumming, 1989; Zamel, 1983). 사고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 표현 능력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한국어의 언어체계를 영어로만 전이시켜주면 쓰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2언어(L2)로서의 쓰기는 계획 단계, 유창성, 문법성, 수사적 구성, 어휘의 다양성 측면에서 모국어 쓰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이나 구성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밝혀냈다(Brown, 2001). 따라서 한국에서 영어 쓰기를 지도할 때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어와 영어 쓰기의 차이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경험할 어려움을 인지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FL 학습자가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의 기초를 토대로 기본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사용되는 모국어와 다른 영어의 언어체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본적인 언어 지식 습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을 위한 기초적인 영어 쓰기 학습이나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영어 쓰기를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알아야 하거나 학습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초 단계의 영어 쓰기 지도 학습 원리와 구체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한다.

II. 쓰기 교수·학습 (Writing Learning and Teaching)

쓰기 능력이란 철자, 구두법 및 대소문자를 올바르게 조합하는 문자사용 능력과 함께 글의 내용 전개 및 구성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문자사용 능력이란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와 구문 사용, 적절한 관용적 표현 사용 및 표현의 간결성(conciseness) 등을 의미하며, 글의 내용 전개 능력에는 주제의 명확성(clarity of topic), 글 내용의 깊이 및 우수성(quality and depth of ideas), 세부 사항의 적절성 및 충분도(adequacy and richness of support), 논리의 정확성(logical accuracy) 등이 해당된다. 글의 구성 능력에는 적절한 수사학적 구조(rhetorical structure) 사용, 단락 구성을 통한 논리적 전개 능력, 주제의 연속성(topic continuity) 및 일관성, 글의 결합성(cohesion) 및 종결성(closure) 등이 포함된다(최연희, 1999).

Scarcella & Oxford (1992)는 Canale & Swain (1980)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능력 분류에 따라, 쓰기 능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으로써 문법 규칙, 형태, 구문, 철자, 구두점 등의 사용 능력을 말한다. 둘째,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으로써 필자가 그의 목적, 주제, 독자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으로써 대명사 지시어(reference)와 생략(ellipsis), 반복 표현의 삭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결합성 있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은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이다. 이는 토의를 통해 의견 모으기, 초고(draft) 쓰기, 수정하기(revision)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1차적인 쓰기 학습 지도에는 문법적 능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표현을 영어로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2차적으로 담화 능력과 전략적 쓰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쓰기 지도의 방향이라 할 것이다.

<표 1> 쓰기 지도와 학습 내용

문자 사용 능력	글의 전개 능력	글의 구성 능력
베껴 쓰기, 따라 쓰기, 받아쓰기를 바탕으로 한 통제된 쓰기 활동	부분적으로 통제된 쓰기 활동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유로운 글쓰기 및 교정
어휘 (알파벳, 단어, 철자 등)	주제의 명확성	적절한 수사학적 구조
문법 규칙 (문장 형태, 구두점 등)	내용의 깊이	단락 구성을 통한 논리 전개
품사의 역할과 특성	세부 사항의 적절성	주제의 연관성 및 일관성
관용 표현 및 적절한 쓰임	논리의 정확성	글의 결합성 및 종결성

한국의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와 학습 목표 언어인 영어간의 거리(transparency)가 학습의 간섭과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급 학습자는 영어와 모국어의 어휘 및 언어 구조 차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영어 쓰기 학습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영어 어휘의 형태적인 정보에 익숙해지도록 흥미로운 활동을 제시하고, 영어 단어로 구성된 문장 구성 원리를 알려주면서, 영어 문법의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알려주는 기회를 초기 학습 단계에서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체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연습의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 차이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 단어가 놓이는 자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적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조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조사를 붙여 문장을 구성한다. 한국어는 조사를 바르게 정해주면, 그 자리가 어디든 의미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영어는 단어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 조사의 의미가 생성된다. 이런 이유로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과 의미가 달라지는 자리 중심 언어라고 한다. 이러한 언어 구조적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영어 학습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2>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적 구조 차이

영어 : 위치(자리) 중심 언어 같은 단어 다른 자리 -> 의미 변화 있음	한국어 : 형태(조사) 중심 언어 같은 자리 다른 형태 -> 의미 변화 있음
Tom ate pizza. (탐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Pizza ate Tom. (피자가 탐을 먹었습니다.)	탐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를 탐은 먹었습니다. 피자가 탐을 먹었습니다.
The old man plants some plants. (그 노인은 몇몇 식물들을 심습니다.)	그 노인은 몇몇 식물을 심습니다. 그 노인을 몇몇 식물이 심습니다.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자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국어의 조사 개념을 영어의 자리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영어 문장 구성의 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영어 단어의 자리를 정확하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의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쓰기 학습 전략으로써 한국어의 조사 개념과 영어의 자리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Ⅲ. 영어 자리 매김 인식

알파벳 쓰거나 단어 쓰기, 베껴 쓰기와 받아쓰기 등의 1차적인 쓰기 활동을 거치고 나면, 통제된 형태의 쓰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통제된 형태의 문장 쓰기 훈련은 반드시 영어 단어가 놓이는 자리와 역할을 함께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국어의 사용 능력을 배제한 채 곧바로 영어 문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통제된 쓰기 학습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문장 구성 원리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을 반복적으로 전환시켜보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영어 문장 생성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어지는 단락 중심의 글쓰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쓰기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기본 영어 단어와 품사 개념 인식

쓰기 활동에서 초기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영어 단어의 인식이다. 한국어로 알고 있는 단어를 영어로 새롭게 써 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영어 단어만을 제시하여 우리말로 뜻과 품사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단순하게 암기시키는 것으로는 쓰기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한국어로 사용되는 어휘 목록을 품사 정보와 연결시키면서 영어 어휘로 전환시켜 주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학습 전이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한국어 개념에는 없는 단, 복수 형태 변화, 인칭에 따른 동사의 형태 변화 등을 비롯한 단어의 외형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품사 정보를 함께 이해하여야만 문장 쓰기 능력의 확장이 가속화된다.

2. 동사를 중심으로 한 영어 자리 인식

기본적인 영어 단어 인식 능력이 갖추어지고 단어의 외형적인 변화에 따른 품사 개념의 인식이 이루어지면,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동사 앞과 뒤에 놓이는 단어들로 문장이 구성된다. 따라서 영어 문장을 쓰는 기준은 반드시 동사가 되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쓸 수 있지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진다.

간단한 영어 문장 쓰기 활동은 동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한다. 동사를 쓸 수 있다면, 동사 앞에 누가에 해당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나란히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활동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표 3> 동사를 기준으로 한 영어 문장 쓰기

구분	활동	예시
1	동사를 쓴다.	make (do make, does make, did make)
2	동사의 앞에 누가(은,는,이,가)에 해당하는 단어나 구를 쓴다.	누가(은,는,이,가) + (do, does, did) make Tom does make~ → Tom makes~ They do make~ → They make~
3	동사의 뒤에 무엇을(을,를)에 해당하는 단어나 구를 쓴다.	누가(은,는,이,가) + make + 무엇을(을,를) Tom does make a kite. → Tom makes a kite. They do make a kite. → They make a kite.

한국의 학습자들이 초보적인 단계의 영어 문장 쓰기 활동에서 주저하는 것은 여전히 단어에 대한 부담이다. 한국의 학습자들은 단어 학습을 할 때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단순하게 암기하기 때문에 단어의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명사와 동사의 구분을 매우 어려워한다. 하지만 모든 동사는 명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명사와 동사 학습을 진행하면 쓰기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4> 명사에게 출발한 동사 표

명사		동사	
work	일	do work, does work, did work	일하다
love	사랑	do love, does love, did love	사랑하다

3. 한국어 조사에 따른 영어 단어 자리 매김

영어를 우리말로 이해하고,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조사 개념과 영어 단어의 위치에 따른 의미 생성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에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의 앞과 뒤의 자리에 적절한 단어나 구, 절을 놓아 적절한 의미를 생성시킨다. 하지만 한국어는 단어 뒤에 어떤 조사가 함께 붙어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성된다. 초기의 영어 학습에서 우리말의 조사 생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영어 문장과 글을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말 사고를 통하여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바꾸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의 어떤 조사가 영어 문장의 어떤 자리에 놓여 의미를 생성시키는 지를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 는, 이, 가’로 대표되는 주격 조사는 영어 문장에서 동사의 앞쪽에 놓이는 단어가 되고, ‘~을, ~를’로 대표되는 목적격 조사는 영어 문장의 동사 뒤 쪽에 위치시키는 원리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표 5> 자리 매김을 통한 인식 과정

한국어	나는 그 선생님을 좋아 한다.	
영어	1. 동사 찾기	like
	2. ‘~은, ~는, ~이, ~가’에 해당하는 말을 동사 앞에 위치	I like
	3. ‘~을, ~를’에 해당하는 말을 동사의 뒤에 위치	I like the teacher.

한국어	예쁜 소녀가 피자를 먹는다.	
영어	1. 동사 찾기	eat
	2. ‘~은, ~는, ~이, ~가’에 해당하는 말을 동사 앞에 위치	A pretty girl eats
	3. ‘~을, ~를’에 해당하는 말을 동사의 뒤에 위치	A pretty girl eats pizza.

초기의 쓰기 학습 과정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개념을 영어의 문장 구성 원리에 맞춰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적절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장을 통제해서 학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쉽고 간단한 문장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충분한 연습의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IV. 결론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영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자동적 과정(automaticity)에 필요한 기본적인 쓰기 지식을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활용한 이해와 표현을 포함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 언어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쓰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휘지식 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문법 구조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조사가 영어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장 전환 훈련,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나란히 쓰임을 인식시키는 훈련 등 포함된 체계적인 쓰기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어가 쓰인 자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영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문장에서 사용된 조사를 활용하여 영어 문장을 써 보도록 하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영어 문장 쓰기에 필요한 규칙성이 인식되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극대화 된다.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어휘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적 차이를 원리 중심으로 알려주고 연습시키는 과정이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쓰기 활동은 단순하게 어휘와 문법적인 지식만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책 읽기 활동을 통한 언어 기능의 통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를 읽어 가면서 전후 문맥을 활용한 의미의 추론과 확장을 할 수 있는 어휘습득 전략은 물론 문법 지식의 확장 등을 지도하여 전략적인 쓰기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문장쓰기에서 문단쓰기로 확장되어 가도록 맥락을 통한 어휘 습득과 담화 문법의 제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쓰기 능력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초급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쓰기 학습 방안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영어 활용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기본적인 어휘지식과 문법지식, 배경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쓰기 전략은 실제 영어 용례(corpus)를 중심으로 영어 문화까지 고려한 쓰기 학습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쓰기 기회를 보다 많이 제시해 주고, 쓴 내용을 말하기로 연결시켜 볼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표현 기능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